

# 씨감자

제210호  
2015 4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사랑하는 씨감자 친구들, 기쁨과 은총 가득한 부활시기를 보내고 있나요? 완연한 봄기운과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꽃들이 부활의 기쁨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산자락에 위치해 아직은 쌀쌀한 기운이 남아있는 이곳 못자리에도 형형색색의 꽃들이 교정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이처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뜻에 충실히 순종하는 피조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이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 친구들과 한 형제로 살게 될 날들을 손꼽아 기다리며 저도 제 역할에 충실하고 있겠습니다^^

요즘 신학교에서는 총장 신부님 배 축구대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어요. 학부 1학년년부터 부제님들까지 각 반에서 축구 실력이 출중한 대표들을 선발하여 리그전을 치르는데요. 승패를 떠나 서로 배려하고 웃음 가득한 경기를 치르며 형제애를 더욱 깊게 느끼고 있답니다. 비록 저는 축구를 잘 하지 못해서 스탠드에서 관람을 하는 입장이지만, 목청껏 소리 높여 응원을 할 때면 동기 신학생들과의 단합은 물론이고 한 주간의 스트레스도 다 떨쳐버리는 것 같아 즐겁게 경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곧 있을 결승전까지 아무도 다치지 않고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도 기도도 함께해 주세요.

화창한 봄날에 부활의 기쁨을 느끼며 이처럼 즐겁게 신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흘러 성소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성소주일에는 지난 1월 동계 피정의 추억이 서려있는 배론성지에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하느님의 부르심인 성소를 느끼고 응답할 수 있는 자리를 원주교구 신학생들과 함께 마련하고 있어요. 재밌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기획하고 있으니 오는 26일에 배론성지에서 반갑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과의 만남을 고대하며 저희 신학생들 모두 열심히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성소주일에 배론에서 만나요~ 안녕!^^

후평동성당 송준호 요한 신학생

## ■ 루카 복음 24,35-48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이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 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 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 ■ 복음 안에서

오늘 복음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뵈고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하지요. 벽과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온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마음, 평화가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섭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니다. 단순히 '평화가 아닌 주님을 통한 평화, 주님과 함께 머무를 때 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평화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평화는 어떤 것일까요? 그로 인해 평화로운가요? 주님의 평화를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 ■ In English (한 말씀만 외워요)

"Peace be with you!" You are witnesses of these things.  
"평화가 너희와 함께!"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날은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  
축일의 기쁨과 함께  
하느님의 축복 가득하세요!



중2	교동	김길준 비오	4/29
고1	후평동	신현재 비오	4/30
고1	간성	유진원 이시들	4/5
고1	간성	송진근 야고보	4/3



천주교 춘천교구 성소국

☎ 033.240.6073

http://youth.cccatholic.or.kr/

E-mail : potatocc@hanmail.net

최창덕 프란치스코 청소년국장 신부

찬미예수님!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씨감자 친구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청소년국에서 사목하는 청소년국 국장 최창  
덕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이곳을 통해 우리 친구  
들을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신부님은 부활절에  
대한 소중한 기억 하나가 있습니다. 보좌신부로 생활  
할 때 성당 유치원이 있었는데, 유치원 담당 수녀님  
께서 유치원 친구들과 함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쁘게 장식한 '부  
활달걀'을 축복해 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유치원 마당에 가 보  
니 귀여운 친구들이 한가득 부활달걀들을 담아 놓은 바구니들과 함  
께 모여 있었습니니다.

축복기도에 앞서 저는 갑자기 유치원 친구들에게 '부활달걀'의 의  
미를 묻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달걀 하나를 집어 들고 물었습니  
다. "우리 친구들 이 달걀 속에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만약 씨감  
자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뭐라고 답하고 싶은가요. 유  
치원 친구들 중에는 "신부님, 흰자와 노른자가 들어 있어요."라고  
했던 친구도 있었고, "찐 계란이 들어 있어요."하고 답했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의 답이 신부님의 귀를 번쩍 띄게 했  
습니다. "신부님, 병아리가 들어 있어요." 부활달걀 속에서 "병아  
리"라는 새로운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단순하고도 아름다운 마음  
에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우리는 부활달걀이 삶은 것이기 때문에 병아리로 부  
화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  
활을 맞이하여 부활달걀을 나누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부  
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신비"를 신앙 속에서 상징적으로 알려주기 때  
문입니다.

우리 씨감자 친구들도 이번 부활절에 부활달걀을 선물 받게 된다  
면, 그냥 음식으로만 먹을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신앙의 신비  
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기뻐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셔서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는 게  
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도 씨감자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예수님  
의 사랑을 주변 사람들과 좀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다짐하겠습니  
다. 우리 씨감자 친구들, 영 육간에 항상 건강하게 지내고 특히 힘  
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 부활의 기쁨"이 우리 친구  
들의 마음속에 용솟음쳐 모든 걸 잘 극복해 나가며 '소중한 성소의  
꿈'을 무럭무럭 잘 키워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도  
가 그 힘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주 참으로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예비신학생 여러분께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성소주일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해마다 부활 제4주일엔 '성소 주일'로, 성소(聖召)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뜻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성소의 가  
치를 모두 존중해 왔으나, 오늘 성소 주일은 사제, 수도  
자, 선교사 성소의 증진을 위하여 기도하고 관심을 기  
울이는 날입니다. 이 성소 주일은 제2차 바티칸 공의  
회가 진행되던 1964년 바오로 6세 교황님이 "수확할 것  
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시오 청하여라."(마태 9,37-38)는 그  
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정하였지요. '성소를 위한 세계  
기도의 날', 곧 성소 주일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소를  
계발하고 육성 하는 일에 꾸준한 기도와 필요한 활동으  
로 협력해야 할 의무를 자각하게 하는 특별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성소는 진정한 성직자의 삶과 관련하여 서로 봉사하게 되는 서로 사랑하  
는 잘 경작된 밭에서 영근 열매입니다." "그 어떤 성소도 스스로 탄생하거  
나 스스로 살아가는 성소는 없습니다. 성소는 하느님의 마음으로부터 흘러  
나오며 형제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독실한 신자들의 좋은 땅에서 꽃이  
핀다." 주님과 함께 할 때에만 우리들은 "걸어갈 수 있고, 하느님의 사랑  
의 사도이자 증인이 될 수 있고, 위대한 이상, 위대한 일들에 대해 우리들  
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일을 하기 위해 우리들 크리  
스천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더 높은 원칙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송고한 이상에 두어아만 합니다!"

- 성소자들을 위한 세계 기도의 날' (2014.1.17.) 메시지에서,  
교황 프란치스코 -

제52차 성소주일에 초대합니다.

- 주 제: "와서 보아라"(요한1,39)
- 일 사: 2015년 4월 26일(주일) 10:00 ~ 17:00
- 장 소: 원주교구 배론성지
- 준비물: 중식, 미사도구

※ 내년도 신학교 지원반인 고3학생과 고졸이상의 일반 지원자는  
별도로 춘천 죽림동성당에서 성소주일 피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간: 당일 오전10시-오후4시)

성소자를 위한 기도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아멘

